

사설

포교환경 조사를 환영하며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포교환경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우선 50여개 사찰을 표본으로 삼아 각 사찰의 포교예산비율, 포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신도단체 내지 포교단체의 구성 및 활용, 신도기본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회를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포교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세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심층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중심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50%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수도권을 버려두고 포교를 운운한다는 것은 전

법을 포기하겠다는 표현과 다름이 없다. 더구나 산업화의 가속화와 전통신화구조의 붕괴는 한국 종교현실을 다변화시켰다. 이제 불교는 우리 사회의 절대 종교가 아니라 많은 종교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침연하자면 이번 조사가 보다 많은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계층, 믿는 이유, 기대하는 사찰의 역할, 사찰의 문제점, 청소년포교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역시 중요한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변화를 직시하고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무상의 가르침이다. 불자의 사명은 바로 전법이라 할 수 있기에 수도권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구간과 경부고속철도 급정산 천성산 구간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최종방침 유보와 공사강행의 입장을 밝혀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 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와 관련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이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환경부도 10일 '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공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부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 건교부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3개월 연장해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모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경부고속철도의 급정산 천성산 구간 공사도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이런 와중에 반대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관련 현장에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 2년이 넘는 각계의 반대 목소리들이 공사현장 굴삭기 소리에 묻히고 있는 것이다.

문고 싶다. 정부는 북한산을 두 번 죽이려 하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다. 지금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반복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인 '백지화'란 전제를 걸어 놓고 어떤 수순과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이다. 이 점을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크게 뉘우쳐야 할 것이다.

신도등록 인터넷으로

조계종 포교원 사이트개발...시험 거쳐 6월부터

사찰과 직접연결, 온라인 포교 발판

조계종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도등록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지난해 12월 30일 인터넷 개발업체인 다나아이앤씨에 신도등록 사이트 개발을 공식 의뢰했다. 오는 3월까지 신도등록 인터넷 사이트 개발을 완료하고 4~5월 시범사찰의 시험 가동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신도등록을 받게 되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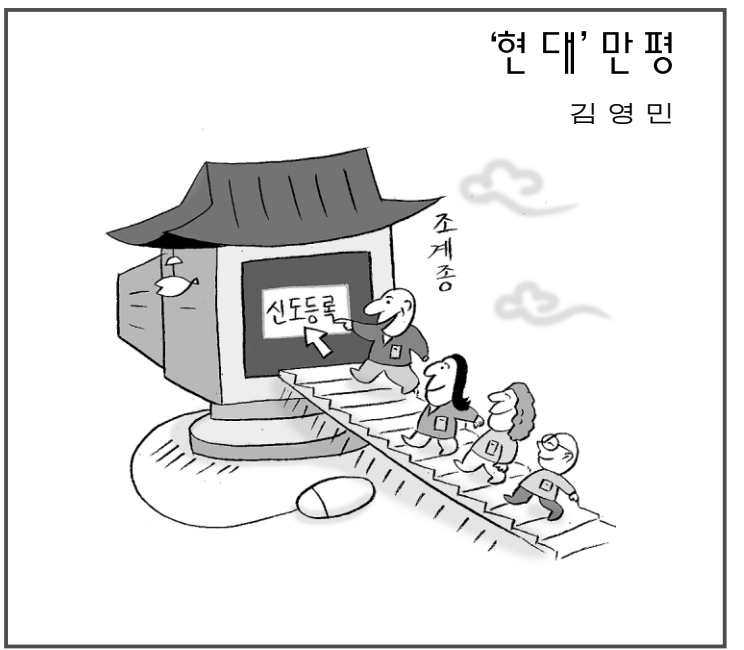
인터넷 신도등록 추진 배경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젊은 층 신도를 비롯해 불자들의 신도 등록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96년부터 8년째 신도등록을 시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등록률이 저조해 추진방법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부각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이용인구가 20~30대에서 40~50대로 확산된 사회적 흐름과 최근 30~40대 신도등록률이 높고 있는 추세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조계종 신도등록은 사찰

접수에서부터 조계종 포교원 등록, 교무급 납부, 최종 신도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인터넷 신도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복잡한 신도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서신교환 등 2~3주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여 1주일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과 개별 사찰의 직접적인 연결이 이뤄져 온라인을 통한 포교행정 처리체계가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등 포교기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 외에도 포교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스



님과 불자들의 포교마인드 개선과 개별 사찰의 현실적인 포교역량이 강화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규 신도과장은 "인터넷 등록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올해 50개 사찰을 목표로 인터넷 등록을 착실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수행환경 수호·재활용운동 추진

조계종 포교사단, 자연보호 실천위 구성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2일 서울 필동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기존의 환경특별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킨 자연보호실천위는 앞으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자연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다. 이를 위해 사찰환경 보존 운동을 상시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재활용 보급 및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의 캠페인과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 보호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터전을 만들어 후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자연보호실천위를 결성, 환경운동의 새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 보호에 앞장서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사찰 가운데 어린이, 학생, 청년 법회를 보는 곳이 전체의 1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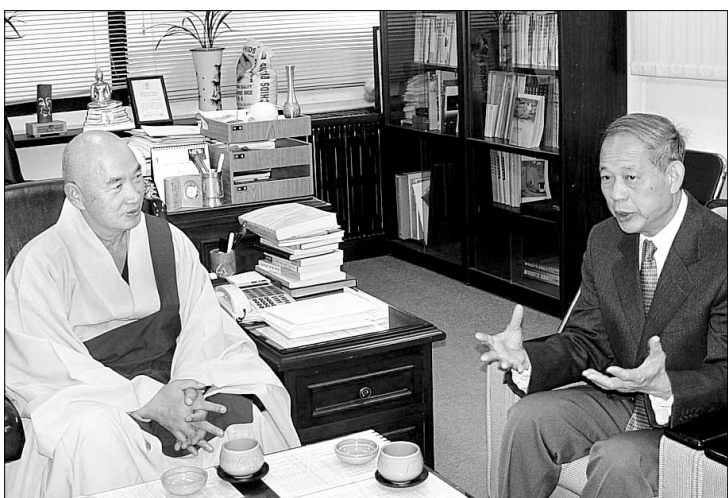
본말사 780곳 중 '법회' 운영 사찰 어린이 14.7, 학생 13.3, 청년 11.9%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포교원 황찬의 포교과장이 13~16일 열린 전국 교법사단 연수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종단의 청소년 포교 정책' 자료에 담겨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이 조계종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응답한 780개 사찰 가운데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130개로 16.7%, 학생법회는 105개 사찰로 13.3%, 청년법회는 93개 사찰로 11.9%에 불과했다. 학생법회의 경우 법회를 개설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46.3%가 '지역 여건으로 대상인 청소년 인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7.8%가 '법회를 이끌 지도교사 부족', 10.5%가 '학생들의 입시 부담', 5.7%가 '사찰 재정상의 부담'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회 법회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7.6%가 '있다'라고 응답해 대다수의 사찰에서 학생법회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교지표조사 결과는 내달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태국노동자 올 봉축행사 동참 승문 산기암부주주한태국대사는 16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님을 예방하고 올해 봉축행사 때 대사관과 2만여 태국노동자들의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영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태국의 날'을 제정하고 태국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2일 봉은사 감사

조사특위·호법부 합동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호법부와 함께 봉은사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봉은사 특위 소위원회는 1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특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호법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8일 봉은사에 14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봉은사 문제는 23일부터 열린 임시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 권노갑 이사 취임

황창규·조영록 교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3일 동국학원 이사직을 사퇴한 권노갑씨 후임이사에 황창규(68·경영학부 교수 역임), 조영록

(67·사학과 교수 역임) 동국대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에 따라 종립학교 이사와 감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복수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쇄인 : 김규석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